

“코스피 내년엔 2600선 간다”

“돈을 벌려면 내년에도 주식시장에 주목하라”

11일 국내 10개 증권사는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호조와 기업실적 개선,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주식시장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내년 코스피지수 고점으로 2,300~2,600선을 제시했으며 유망업종으로는 증권과 보험, 정보기술(IT) 등을 꼽았다.

그러나 선진국의 내수경기 침체와 고유가, 달러약세 등 불안한 대외 변수는 주식시장에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지수, 최고 2,600선까지 간다=국내 10개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증권 등 4곳은 내년 코스피지수의 고점으로 2,500~2,600을 제시했다. 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푸르덴셜증권 등 4곳은 코스피지수가 내년에 2,400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양증권증권과 교보증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2,350과 2,300을 내년 지수 고점으로 제시

증권사들 “국내외 경기호조에 호황 지속”

증권·보험·IT 유망... 중국 수혜주는 ‘글썸’

했다.

이영원 푸르덴셜증권 투자전략실장은 “내년 주식시장은 견조한 국내외 경기와 연간 15% 수준의 기업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국내 14개 증권사와 5개 경제연구소, 2개 해외기관의 경제 및 중시 전망을 집계한 결과, 올해와 내년의 한국 GDP 성장률 평균 추정치(컨센서스)는 각각 4.8%, 5.0%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내 증권사가 이익 추정치를 제공 하는 229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내년 매출액과 순이익은 올해 추정치 대비 각각 10%,

17%(에프앤가이드 기준) 늘어나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시장의 기초체력이 튼튼한 상황에서 주식증권펀드와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랠리를 이끌 ‘실탄’도 꾸준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외변수 불안, 단기급락 위험” 지적= 그러나 미국발 경기침체와 중국긴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지난해 달러약세 등 대외변수는 주식시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가상승 피로감과 고유가 등 대외변수가 겹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사별 내년 코스피 전망

증권사	코스피 전망	유망업종
동양 증권	1,800~2,350	증권·디스플레이·자동차
현대	최고치 2,400대	에너지·소재·산업재·보험·증권
굿모닝 신한	1,800~2,500대	유통·보험
미래에셋	1,900~2,400	항공·보험·인터넷
키움	1,800~2,600	중국 관련주·IT·금융
한화	최고치 2,550	보험·증권·자동차
하나대투	1,700~2,500	유통·철강·건설
한국투자	최고치 2,400대	-
교보	1,700~2,300	IT·증권
푸르덴셜	2,070~2,480	IT·경기관련·소비재

교보증권과 하나대투증권, 키움증권, 동양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 5개 증권사가 내년 지수 저점으로 1,700~1,800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한편 내년 유망업종으로는 올해 주식시장의 주도주로 가격부담이 커진 중국 수혜주보다는 증권과 보험, 정보기술(IT)을 꼽는 증권사가 많았다.

증권사는 증시 호황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수혜가 겹치면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보험주는 비교적 큰 폭의 실적개선을 시험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장기간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IT주는 저평가 매력과 업황 개선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kwangju.co.kr

배추·무값 작년보다 2~3배 급등

올 김장은 ‘金장’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배추와 무 공급이 여의치 않아 이번 달 배추와 무 값이 작년의 2~3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양파와 마늘 등 양념류의 경우 충분한 재고 등에 힘입어 김장철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농촌경제연구원원의 ‘채소관측 월보’에 따르면 이달 상품 10kg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같은달 평균 2천883원의 2.3배인 6천500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평년(2002~2006년 평균) 11월의 3천328원과 비교해도 2배 수준이다.

더구나 12월 배추 출하면적도 작년 동월대비 13% 줄고 내년 1~3월에 생산되는 겨울배추 재배면적이 제주지역 태풍피해 등에 8% 감소함에 따라 배추값 강세는 연말 김

장철을 거쳐 내년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국산 배추값 급등은 김치 및 배추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9일 들어온 김치와 배추는 각각 2만5천194kg과 644t으로, 이를 신선 배추로 환산하면 작년 같은기간보다 43% 늘어난 5만1천여t에 이른다.

무 값은 배추보다 상승 폭이 더 크다. 무는 이달 출하면적과 생산단수가 17%, 10%씩 감소함에 따라 출하량이 27% 급감, 상(上)품 18kg 도매가격 기준으로 1만4천원 안팎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 같은달 평균 4천735원의 무려 3배, 평년 11월 6천884원의 2배 수준이다.

연구원은 무 값 고공행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시중 자금 고수익 찾아 대이동

시중자금이 고수익을 찾아 출렁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터넷 펀드에는 출시된 지 열흘 만에 3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투자한다’는 이 펀드는 다른 펀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은 판매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시중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국내의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중국 펀드에 대한 투자 광풍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반면 고금리를 앞세운 은행 예금에는 좀처럼 돈이 몰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단기성 자금을 중심으로 예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창 집값이 오를 때에는 돌만 모이면 부동산이 화제였는데 요즘에는 온통 펀드 이야기뿐”이라며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예금 금리를 인상해도 좀처럼 자금이 모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금융권 연말 앞두고 구조조정 잇따라

연말을 앞두고 금융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근무연수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조만간 신청을 받는다.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04년 씨티은행과 옛 한미은행의 합병 이후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600여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옛 조흥은행과 합병으로 부지장장 이상 상위직급이 여전히 많아 추가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조직 개편 방식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부서별 합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한 뒤 노조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보험사들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 13일 까지 과장 이상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무사고 오토바이 보험료 최고 60% 할인

내년부터 사고를 내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료가 매년 5~10%, 최고 60% 할인된다. 또 오토바이 용도와 배기량, 운전자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대인피해와 대물사고를 보상하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를 ▲클리어스·택배 등 유상 운송용, 음식·우편배달 등 비유상 운송용, 가정용 ▲배기량 100cc 이하, 100cc 초과~250cc 이하, 250cc 초과 ▲운전자 연령 20세 이하, 21~26세, 27~30세 등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다.

지금은 모든 손해보험사의 오토바이 책임보험료가 똑같지만 앞으로 배달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가정용은 싸지는 등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차이나다. /연합뉴스

한국표준산업분류 8년만에 전면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8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통계청은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산업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30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에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산업분류란 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통계작성의 기준 뿐 아니라 조세지원 등 각종 산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2000년 3월 시행된 8차 개정 이후 8년만에 바뀌는 9차 개정안은 유엔이 지난해 개정된 국제표준 산업분류에 맞도록 여러 영역에 흩어진 문화산업을 통합하고 사업서비스업을 전문성에 맞게 구분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이 기존의 20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제철 맛은 벌교 꼬막 맛 보세요 제철을 맞은 벌교산 꼬막이 11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 등장해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꼬막은 고단백 저지방의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 칼슘,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예방과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다. /연합뉴스

버티던 정부, 유류세 인하 ‘만지작’

배럴당 100달러 돌파땐 탄력 세율 조정 고유가 대책에 서민층 지원 방안 준비중

정권교과 여론이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 내농을 종합대책에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탄력세를 조정을 시작으로 하는 세급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주중 고유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와 고유가대책을 주된한 의원들이 종합 대책을 준비중”이라면서 “그러나 고유가가 타격받는 서민계층 지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최근 “유가 상승을 세금인하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서민층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때문에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부담금 경감방안, 석유제품 유통구조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유나 프로판가스 등 서민층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추가지원 등을 놓고 실현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또 유통시장 개선안은 주유소업체

의 반발만 불러올 뿐 특별히 가격을 떨어뜨릴만한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서민연료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kg당 40원인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l 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를 60원으로 낮추기로 한 기존 방안 외에 새로운 지원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따라서 일일소독 계측 이하의 교통카드 사용·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방안, 지하철·전철 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간접적인 고유가대책 방안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면 탄력세를 인하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종부세의 계절

대상자 42% 세액 100만원 이하

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의 42%는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고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의 평균 세액은 80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약 50만5천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의 34만1천명보다 48.1% 늘어난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납세인원 중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38만1천명 정도로 지난해 23만2천명보다 6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2005년 8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천777만

명 중 971만명의 3.9%에 해당된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2조8천814억원으로 전년대비 작년의 1조7천179억원에 비해 67.7%(1조1천6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높아져 종부세 납부대상과 전체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2.8%, 토지는 11.6% 올랐으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평균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다.

또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42.2%는 100만원 이하를, 81.1%는 5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각각 낼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주택 건립후 6개월 임대 안되면 과세 안해

■달라진 내용 뭘까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제청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과표적용률이 올라가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나 사원용 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제도개선으로 완화된다.

다음은 올해 달라진 종부세 내용이다.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승=주택과 종합 합산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올라간다. 별도 합산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도 55%에서 60%로 인상된다. 주택·종합 합산 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은 내년에 90%가 되고 2009년부터 100%가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 2015년부터 100%가 된다.

◇최초 건립 건설임대주택 세 부담 완화=종전까지 최초로 지어진 건

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되지 않아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개 안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재지변에 따른 임대 불가능 추정에서 배제=임대주택에 대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무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정이 배제된다.

◇사원용 주택 종부세 면제조건 개선=종업원에게 무상 뿐만 아니라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면제된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서민 0.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탄력세를 적용요건·기준 강화=시장·군수의 재산세 탄력세를 적용요건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58회)				파란복권 (제8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14 27 30 31 38 40	17		1	10억	1조	1조	810788
			2	5억	1조	1조	810787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810789
1 6개 숫자 일치	2,426,434,350	4	4	1백만	각조	각조	7920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7,772,247	28	5	1만	각조	각조	581
3 5개 숫자 일치	938,297	1,724	6		각조	각조	45
4 4개 숫자 일치	59,213	54,638	7		각조	각조	83
5 3개 숫자 일치	5,000	901,197			1천	각조	6